49장. 족장 야곱의 축복과 유언

1. 야곱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족장들이다. 이후의 세대는 이들이 받은 계시에 근거하여서 생활하였다. 마치 신약의 교회가 사도의 기초에 서 있듯이, 구약의 교회는 족장들의 기초에 서 있다. 모세가 선지자로서 큰 활동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였는데, 모세도 죽기 전에 열두 지파를 축복하였다. 모세의 축복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축복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이 축복은 언약의 핵심을 가리킨다. 특히 유다에 대한 약속은 다윗을 거쳐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된다.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한 것은 시점을 놓고 볼 때 큰 의미를 지닌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 있지만, 야곱이 주는 복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야곱은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다.

열두 아들을 축복한 데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저주가 언급된 세 지파도 열두 지파의 복에 참여하였다. 징계를 잘 받는 것이 그들에게나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이 된다. 르우벤은 장자권이 박탈된다고 하였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도 말하였지만, 야곱의 말은 근본적으로는 열두 아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한 축복이다. 그러므로 각 지파를 중심으로 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각기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열두 지파에 대한 축복을 보면 각기 특색이 있다. 어떤 지파는 농사에 능하고 다른 지파는 장사를 잘하고 또 다른 지파는 전쟁에 능하다. 이러한 것이 모두 구비되어서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분량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셋째, 야곱의 축복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성격이 있는데,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복의 한가운데에 있다(49:18). 특히 단 지파에 대한 예언 다음에 나오는 기도는 이스라엘의 존속이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다. 야곱의 축복은 야곱 개인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는 것이다.

넷째, 야곱의 축복에는 예언의 성격이 있지만 결정론적이지는 않다. 각 사람에 대한 복은 좋게 발전할 가능성과 나쁘게 될 가능성이 함께 있었다. 특히 잇사갈, 단, 베냐민 등에게 주어진 예언들은 모호하였고, 그들의 재능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함께 있었다. 이를테면, 레위의 경우는 저주의 말이었지만 후에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였을 때 동일한 예언이 복의 말로 바뀌었다.

2. 야곱의 유언과 죽음

(1) 유언과 명령 (49:29-32)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것이었다면, 자신의 장사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가족의 역사를 돌이키면서 유언을 하였다. 야곱은 전에 요셉에게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청할 때에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하면서 맹세를 시킨 반면에(47:29-30), 지금은 동일한 사실을 '명하고' 있다(49:29, 33). 야곱이 유언을 명령의 형식으로 준 것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장래에 관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묻히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장지에 대해서 명령의 형식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2) 야곱의 죽음 (49:33)

야곱은 침상에 앉아 유언을 하였는데(48:2), 이제 그 일을 마친 다음에는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침상에 누

누워 힘이 다하여 죽었다. 그는 마지막 남아 있는 힘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유언의 명령을 한 다음에 나그네의 생애를 마감하였다. 야곱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그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묵상과 실천:
야곱의 축복과 나그네 일생

1. 야곱의 축복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기원한 축복은 구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열두 지파에 대한 것이다. 야곱은 열두 아들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 각 지파는 공통된 것도 있지만 분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니게 되었다. 그 다른 것들이 보완되면 구약의 교회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기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향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마 25:15). 재능 자체가 달란트는 아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조금해도 좋은 성적을 내고 어떤 사람은 많이 해도 좋지 못한 성적을 내는 경우도 있다. 집중해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도 있겠지만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몸이 지체들이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연합해서 한 몸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주께서 은혜로 주신 재능들을 주님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각기 다른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에 따라서 다른 일을 맡기신 것은 한 몸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잘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것을 잘 사용하면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2. 야곱의 나그네 일생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읽으면서 야곱의 일생을 돌아본다.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어렸을 때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형과 대결을 하였던 야곱은 자신의 간교함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한 요셉을 잃는 비통함을 당하였다. 그러나 생의 말년에 요셉을 다시 찾아 애굽 땅에 와서 17년을 지내고 조상에게 돌아갔다. 야곱의 인생 여정을 살펴볼 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 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47:9)는 말이 실감난다.

그러나 야곱의 생애에서 유랑하는 것만을 강조하면 핵심을 놓치게 된다. 나그네 세월도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히 11:13-16). 야곱의 나그네 생활에서 주목할 점은 그의 인생의 여정의 전환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징계하심으로 밧단 아람에 갈 때에도 벧엘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셨고(28:13-15)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으며(31:3) 라반에게서 그를 지키셨고(31:24) 언약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를 얍복 강에서 새롭게 하고 새이름을 주셨다(32:28). 세겜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나타나서 벧엘로 올라가 언약을 새롭게 하게 하셨고(35:1, 10-12)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올 때에도 브엘세바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셨다(46:3-4).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실 때에 그를 변화시키면서 인도하셨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복을 주면서는 그러한 태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요셉에게도 장자와 차자의 기존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는데, 전환을 이루는 것이 얍복 강에서 씨름하면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건이다. 야곱이 자기가 야곱임을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예언자 이사야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지렁이와 같은 야곱'으로 비유한다(사 41:14). 밟으면 그냥 존재가 없어질 '벌레'(시 22:6)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었으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그들을 새로 지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아서 열국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겠다고 하셨다(사 41:15).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여호와께서는 동일한 능력을 교회에게 베풀어서 미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며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신다.

이러한 은혜는 자기가 벌레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임한다. 야곱이 야곱임을 고백할 때에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신다.

49장 익힘 문제

1.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3절)
2.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복을 받은 지파는 누구입니까? (10절)
3. 예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까? (10절)
4. 단 지파의 예언 다음으로 나온 야곱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존속이 어떠한 분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알려줍니까? (18절)
5. 막벨라 굴에 장사 된 여섯 사람을 써보십시오. (29, 31절)
6. 야곱이 임종할 무렵 열두 아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시켜 보세요.
   1) 르우벤 ( ) a 해변에 거하며 그 지경은 시돈까지다.
   2) 시므온 ( ) b 양의 우리에 앉은 건장한 나귀,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김.
   3) 레위 ( ) c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치 못하도다.
   4) 유다 ( ) d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5) 잇사갈 ( ) e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6) 스불론 ( ) f 기름진 식물을 내고 왕의 진수를 공궤할 것이다.
   7) 단 ( ) g 놓인 양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다.
   8) 납달리 ( ) h 물어뜯는 이리,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9) 갓 ( ) i 샘 곁의 무성한 가지,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10) 아셀 ( ) j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11) 요셉 ( ) k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12) 베냐민 ( )
7. 예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까? (10절)